

2014 미소 선생의 서울시 7급 문제 해설

1.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 ① 순철이는 학교에서 주최한 ‘일년 동안 책 많이 읽기’ 시합에서 일등을 했다.
- ② 순영이는 바닷가에서 살아서 물 속에서 숨 안 쉬고 오래 참기를 잘 한다.
- ③ 지난 주말에는 온 가족이 ‘봄맞이 함께 걷기’ 대회에 참석했다.
- ④ 우리말에서 정확한 띄어쓰기는 참 어렵다.
- ⑤ 사람이라면 치타보다 빨리 달리기가 쉽지 않다.

답) ④. [난이도 중, 현대문법-품사] - 예상한 문제 유형 ‘띄어쓰기’는 명사다. 나머지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모두 ‘동사에 해당한다.

2. 국어학자 주시경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국문 전용을 주장한 어문 민족주의자로서 현대 국어 문법의 틀을 마련하였다.
- ② 최초의 국문법 연구서인 『국문정리』를 지었다.
- ③ 1896년 국문동식회를 독립신문사 내에 결성하였다.
- ④ 임경재, 최두선, 이규방, 장지영 등 여러 제자를 육성하여 그의 사후 조선어 연구회 창설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 ⑤ 국어 운동가로서 표의주의로의 체자(體字) 개혁을 주장하였다.

답) ②. [난이도 중, 지식국어] - 예상한 문제 유형 ‘국문정리(國文正理)’는 1897년에 이봉운이 적은 최초의 국문법 연구서다.

3. 다음 중 훈민정음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음소문자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실제로 표기할 때는 음절 문자처럼 사용되었다.
- ② 실사와 허사를 분리하여 적지 않고 이어 적는 연철식 표기법을 택하였다.
- ③ 흘글자들을 병서 또는 연서하는 방식으로 많은 글자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④ 훈민정음 체계 속에는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방점이 포함되어 있다.
- ⑤ 훈민정음 창제 시부터 문장 내에서 띄어쓰기를 하였다.

답) ⑤. [난이도 하, 훈민정음] - 예상한 문제 유형 띄어쓰기는 ‘독립신문’ 창간에서 시도되었다. 훈민정음 창제 시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다.

4. 다음 고사에서 생겨난 사자성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백이 촉 땅의 성도에서 자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백은 학문에 매진하기 위해 집을 떠나 상의산으로 들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냈다. 그러나 낭만주의자 이백에게 그런 생활이 마음에 맞았을 리가 없었다. 하루는 학문에 싫증이 나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도중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바위에 도끼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백은 그 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해 물었다.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할머니는 부지런히 도끼를 갈며 말했다.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단다. 이백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예?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요? 그렇다.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만들 수 있지. 이백은 할머니의 인내심과 노력에 크게 감동하여, 발길을 돌려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 이후 이백은 학문에 정진하여 훗날 두보와 더불어 중국 시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

- ① 欲速不達
- ② 切齒腐心
- ③ 愚公移山
- ④ 附和雷同
- ⑤ 磨斧作針

답) ⑤. [난이도 하, 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마부작침(磨斧作針)’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 ① 욕속부달(欲速不達) :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③ 우공이산(愚公移山) :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쫓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5. 다음 밑줄 친 단어나 구의 사용이 적절한 것은?

- ① 이것으로 인사를 가름합니다.
- ② 그는 이제 담배를 일체 피우지 않습니다.
- ③ 선생님의 이론을 좃아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 ④ 양지바른 곳에 앉아 햇빛을 쬐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⑤ 가능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 ③. [난이도 중, 맞춤법] - 예상한 문제 유형
'좃다'는 '남의 이론 따위를 따르다.'는 뜻으로 쓰인다. '선생님의 이론을 따르다'로 옳다.

- ① '다른 것으로 바뀌어 대신하다'의 뜻인 '갈음'으로 적어야 한다. '~ 갈음합니다.'
- ②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행위를 그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쓰는 말은 '일절(一切)'이다. '~ 일절 피우지~'
- ④ 해가 내리쬐는 기운으로 따뜻함이 들어갈 때는 '햇볕'이 옳다. '~ 햇볕을 쬐면서~'
- ⑤ '가능한'은 관형어이므로 뒤에 '빨리'라는 부사를 수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으로 적어야 옳다. '가능한 한 빨리 ~'

6.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은?

- ① 그 아이의 귀는 매우 **예민(銳敏)**하다.
- ② 그 범인은 자신을 검사로 **사칭(私稱)**하고 다녔다.
- ③ 그는 모든 군인의 **귀감(貴鑑)**이 되었다.
- ④ 올해는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削減)**되었다.
- 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踏躒)**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답) ④. [난이도 상, 한자] - 예상한 문제 유형

- '삭감(削減)'은 '깎아서 줄임'이라는 뜻이다.
- ① 예민(銳敏) : 무엇인가를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
 - ② 사칭(詐稱) :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이름.
 - ③ 귀감(龜鑑) :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 ⑤ 답습(踏襲) :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좇아 그대로 행함.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범에 맞는 것은?

- 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 손잡이를 호스와 직각 방향으로 돌려 **잠그어** 주세요.
- ② 불이 붙은 상태에서 취침 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 ③ 각 스위치는 뒤쪽을 누르면 **원도**가 열리고, 앞쪽을 누르면 닫히게 됩니다.
- ④ **후레쉬** 촬영 시 눈이 빨강게 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 ⑤ 물을 직접 뿌리거나 벤젠이나 **알콜** 등으로 닦지 마세요.

답) ③. [난이도 하, 한자]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잠그+아'의 꼴이 되고 이것은 '감가'로 적는다.
- ② '삼가다'가 기본형이므로 '삼가'로 써야 한다.
- ④ 'flash'는 'f'는 'ㅍ'으로만 적는다는 규정과 'l'뒤에 모음이 오면 'ㄹ'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j]'는 어말에서 '시'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플래시'로 적어야 한다.
- ⑤ 'alcohol'은 '알코올'로 적어야 한다.

8. 아래의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의미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다음 날 반찬이 열다섯 가지쯤 되는 여관의 아침상을 받자 두 번째 받는 상인데도 허구한 날 **약비나게** 그것만 먹었던 것처럼 울컥 비위에 거슬려 왔다.

- ① 너무 지나쳐서 진저리가 날 만큼 싫증이 나게
- ②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이 예사스럽게
- ③ 몹시 먹고 싶었던 듯하게
- ④ 늘상 먹어 왔던 듯하게
- ⑤ 정신 없게

답) ①. [난이도 중, 어휘-순우리말] - 예상한 문제 유형

'약비나다'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진저리가 날 만큼 싫증이 나다.'의 뜻이다. 문맥상으로 접근이 가능한 문제였다.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문장은?

- ① 그는 음식이 나오는대로 먹어 버렸다.
- ② 그녀는 처음 부터 나에게 호감을 보였다.
- ③ 우리는 선후배 사이 이기에 허심탄회하게 지내자.
- ④ 여러분은 올해부터 힘찬 도약의 나래를 펼것입니다.
- ⑤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답) ⑤. [난이도 중, 띄어쓰기] - 예상한 문제 유형

'한마디'는 '짧은 말. 또는 간단한 말'로 한 단어다. 그러므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

- ① 그는 음식이 **나오는대로** 먹어 버렸다. : '대로'는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 ② 그녀는 **처음부터** 나에게 호감을 보였다. : '부터'는 조사로 붙여 써야 한다.
- ③ 우리는 선후배 **사이이기에** 허심탄회하게 지내자. : 조사 '이'와 어미 '기에'가 결합한 것이다. 조사와 어미는 모두 붙여 써야 한다.
- ④ 여러분은 올해부터 힘찬 도약의 나래를 **펼것입니다**. : '것'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10. 다음 글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많이 소원 해졌다. 맹수의 위협을 받는 일도 없어졌거니와 아름다운 새소리를 접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어떨까?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상황을 증언하는 책 속에 유명한 일화가 실려 있다. 탄자니아의 한 초등학교에 갔을 때 함께 간 TV 방송국 사람이 도화지와 크레용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부탁했다. 애들아, 아무거나

- 답) ①. [난이도 상, 문장의 관계] - 예상한 문제 유형
 ㉠과 ㉡은 사건의 선후관계로 맺어진 문장이다. 즉,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을 철수는 갚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밥을 먹은 후에 디저트로 커피 한 잔 하는 선후 관계다.
 ㉢ 집을 산 사람을 규정한 것이다.
 ㉣ 영희는 여자인데,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라는 이야기다. 즉 영희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이다.
 ㉤ 동생과 자신의 관계를 규정했다.

14. 법률 용어를 순화한 것 중 옳지 못한 것은?

- ① 蒙利者 : 이익에 어두운 자
- ② 隱秘 : 숨김 또는 몰래 감춤
- ③ 懈怠하다 : 게을리 하다
- ④ 溝渠 : 도랑 또는 개골창
- ⑤ 委棄하다 : 내버려두다

답) ①. [난이도 하, 국어의 순화] - 예상한 문제 유형
'몽리자(蒙利者)'는 '이익을 얻는 자'라는 뜻이다.

15. 다음 중 아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은 어느 것인가?

정보 보고서 작성 기본 10원칙

- (1) 결론을 먼저 서술
- (2) 정보의 조직화와 체계화
- (3) 보고서의 형태 이해
- (4) 적합한 언어 사용
- (5) 단어의 경제적 사용
- (6) 생각한 것을 분명하게 표현
- (7) 능동적 표현
- (8)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를 스스로 편집
- (9) 정보 사용자의 수요를 분명히 알 것
- (10) 동료의 전문 지식과 경험 활용

- ① 정보 사용자는 보고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빨리 알고 싶어하므로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다.
- ② 보고 내용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최대한 이해가 가도록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 ③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자신이 생각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한다.
- ④ 정보 사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술해 나가야 한다.
- ⑤ 동료들의 조언을 받되 작성자가 수정을 반복해서 최상의 상태라고 판단했을 때 제출한다.

답) ②. [난이도 중, 실용문작성] - 예상한 문제 유형
적합한 언어의 사용은 옳았지만,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16. 다음 수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가장 잘 드러난 시조는?

나는 그림은 잘 모른다. 산수화나 수묵화 같은 동양화의 감식안을 갖추지 못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처지다. 그러나 어느 전시회에서 검정색 하나만을 써서 그린 수묵화 앞에 섰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현란한 컬러 텔레비전으로 오염된 나의 시각에, 아직 마비되지 않은 신경 오라기가 몇 줄 남아 있었을까? 검정색 하나의 그 그림에는 기운이 넘치고, 5색 7색의 찬란한 채색화를 능가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발견했다. 오래 잊었던 잔잔한 호수의 거울같이 평정한 행복감이 수묵화에서 나에게 다가왔다. 병든 현대인에게는 고유한 마음으로 참다운 자기를 되찾게 하는 수묵화의 행복론이 인생의 내면을 살찌게 해 주는 보약이 되지 않을까?

- 신일철, <수묵화 행복론>

- ①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도라 드니/ 산천은 의구호되 인걸은 간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호노라
- ② 이고 진 더 늘그니 짐 프러 나를 주오/ 나는 점엇써니 돌히라 무거울가/ 늘거도 설웨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가
- ③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지/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나마는/ 다정도 병인 양호야 줌못 일워 호노라
- ④ 추강에 밤이드니 물결이 초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흔 들빛만 싯고 빈비 저어오노라
- ⑤ 동지사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춘풍 니불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답) ④. [난이도 중, 실용문작성] - 예상한 문제 유형
마음의 평온을 노래한 것을 찾으면 된다. 가을 강에서 유유 자적하는 삶을 노래한 ④이 옳다.

- ① 인생무상, 맥수지탄
- ② 늙은이에 대한 공경
- ③ 봄밤에 애상감
- ⑤ 임에 대한 그리움

17. 다음 밑줄 친 한자의 용법이 다른 하나는?

- ① 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
- ② 古者易子而教之.
- ③ 君子不鏡於水而鏡於人.
- ④ 儒以文亂法而俠以武犯禁.
- ⑤ 君子周而不比小人比而不周.

답) ③. [난이도 하, 외래어의 표기]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백 : 외래어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 ② 솥 : 받침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ㅇ’으로만 적는다.
- ④ 주스 : ‘ㅈ’ 아래 이중모음을 표기하지 않는다.
- ⑤ 파일 : ‘f’는 ‘표’으로만 표기한다.

20. 다음 중 한글로 전해지지 않는 시는?

- ① 사미인곡 ② 정읍사
- ③ 풍요 ④ 누항사
- ⑤ 청산별곡

답) ③. [난이도 하, 지식국어] - 예상한 문제 유형

‘풍요’는 4구체 향가로 향찰로 기록되어 있다.

[총평]

작년에 이어 문제를 공개한 이번 서울시 시험은 난도가 상인 문제와 하인 문제를 비슷한 문항으로 출제해 변별력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던 한문이 출제되었고, 발음문제나 문장 관계를 묻는 문제 등은 생소한 문제 유형으로 접근하기 그리 수월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시험의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대략 국어규범 9문항, 어휘 2문항, 읽기 1문항, 한자 2문항, 지식국어 2문항, 문학 2문항, 쓰기 1문항, 한문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근의 모든 시험은 읽기 지문을 늘리는 경향인데, 서울시는 9급과 7급 모두 1문항을 출제해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 읽기와 어휘 문항이 작년에 비해 줄고 한문이 출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7급 시험답게 모든 영역을 고르게 출제한 이상적 문제 구성이었다. 앞으로 수험생들은 한문, 한자, 지식국어 등 모든 영역을 고르게 학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난도에 따라 이번 시험을 분석해 보면 상 5문항, 중 8문항, 하 7문항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상위권 학생이 75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험은 작년 서울시 시험보다는 1문제 정도 어려웠고, 변별력도 상당히 높은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